제11강 베르그송: 지속 I

(1교시)

1. 의식상태들의 다수성에 관하여 : 지속의 관념

베르그송의 박사학위 논문이자 첫 저서인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대한 시론』(최화 옮김, 아카넷, 2001. 앞으로 '위 책'이라 약칭함.) 중 제2장 '의식상태들의 다수성에 관하여: 지속의 관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역본으로 약 80쪽 가량 되는 분량입니다만, 그 속에 베르그송의 시간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들이 빼곡히 들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말 그대로 '강도 높은' 글입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그리고 천착하듯이 치밀하게 분석해야만 그 본의와 함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글입니다. 이 글에는 소제목들이 붙어 있는데, 참고로 차례대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수적 다수성과 공간>, <공간과 동질적인 것>, <동질적 시간과 구체적 지속>, <지속은 측정할 수 있는가?>, <엘레아학파의 착각>, <관념과 동시성>, <속도와 동시성>, <내적 다수성>, <실재 지속>, <자아의 두 측면> 등의 10개의 소제목입니다. 국역본에서는 <운동은 측정할 수 있는가?>라는 소제목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이 소제목에 해당되는 것들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이에 집중됩니다.

2. 수적 다수성과 공간

양 50마리를 세는 경우, 이 셈은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베르그송이 맨 처음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 하면서 양의 마리 수를 셀 때 분명 시간적인 계기(succession)를 따라 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시간 속에서 셈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르그송은 그렇게 세기 위해서는 앞서 센 양들을 계속해서 어디엔가 '병치 즉 나란히 놓아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베르그송은 그것들에 대한 표상을 '동시적인 표상'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센 양들을 나란히 놓는 그곳이 어디냐는 것이지요. 베르그송은 그곳은 '공간'이지 시간을 말하는 순수 지속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베르그송이 말하는 공간은 객관적인 공간은 아닐 것이고, 의식 내의 추상적인 공간일 것입니다. 세는 것은 계속 합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보태기는 실제 대상을 세는 것과 별도로 성립하는 것 같은 추상적인 수를 활용하는 모든 산술에서 기본입니다. 그래서 베르그송은 추상적인 수 모두에 공간의 직관이 들러붙는다고 말합니다.

"수에 대한 분명한 관념은 모두 공간 속에서 본다는 것을 내포한다."(위 책 102쪽)

그러면서 베르그송은 수가 비록 통일된 단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자체 불가분적이긴 하지만, 분수 개념에서 잘 드러나듯이 가분적인 것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수 하나하나에 주의를 고정하면 불가분한 것처럼 주어지지만, 수들이 서로 보태져 합계를 이루어 하나의 선처럼 되면 그것은 가분적인 것으로 주어진다는 것인데요. 이를 베르그송은 수가 공간에서부터

www.artnstudy.com

구성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주어진 한 공간의 다양한 부분들에 차례로 주의를 고정하는 불가분의 과정은 고유하게 정신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립된 부분들은 다른 것들에 보태지기 위해 보존되며, 일단 서로 보태지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분해될 준비가 된다. 그것들은 따라서 분명 공간의 부분들이며, 공간이란 정신이 수를 구성하는 질료이며, 정신이 그것을 위치시키는 장소이다.”(위 책, 109쪽)

어떤 것을 셀 수 있다는 것은 그것들을 공간의 부분들로 여긴다는 것이고 쪼갤 수 있다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불가분의 단위를 포착하는 것은 순전히 정신의 힘에 의한 것이라는 이야깁니다.

(2교시)

여기에서 베르그송은 의식의 사실‘들’도 셀 수 있는 다수성인가를 따집니다.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데 저녁 종소리가 울립니다. 이때 분명 종소리는 계기적으로 울립니다. 하지만 계기적으로 울리는 종소리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소리가 몇 번 울리는가를 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소리를 세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종소리를 아예 셀 생각을 하지 않고 종소리의 울림을 그 자체로 무리로 연결해서 종소리 전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 종소리는 양적으로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종소리가 질적으로 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종소리들이 차례차례로 보태진 것이 아닙니다. 보태진다는 것은 보태지는 항을 위해 앞선 항이 일정한 공간 속에 보존되어 병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르그송은 “시간의 한 순간은 다른 것들에 보태지기 위해 보존될 수 없다.”(위 책 112쪽)라고 말합니다. 보태질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체 불가분의 단일성과 아울러 전체성을 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르그송은 시간과 공간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통상 의식의 사실들을 여러 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예컨대 이 칠판지우개를 보다가 여기 강의실 전체를 생각하게 되면 칠판지우개에 대한 의식과 강의실 전체에 대한 의식이 나뉘고 따라서 두 개의 의식 사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베르그송 역시 이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베르그송은 이 대목에서 두 종류의 다수성을 구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두 종류의 다수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직접적으로 수를 형성하는 물질적 대상들의 다수성과, 필연적으로 공간이 개입하는 어떤 상징적 표상의 매개 없이는 수의 모습을 띨 수 없는 의식적 사실들의 다수성이 그것이다.”(위 책, 113쪽)

www.artnstudy.com

공간의 개입, 베르그송이 의식에 대한 우리의 통념적인 견해나 또는 전래의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연합(association)등을 들먹여 의식의 과정들을 설명하려는 잘못된 견해들이 나오는 것은 이 공간의 개입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흔히 의식을 시간적이라고 하면서도 의식을 셀 수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은 결국 의식에 공간을 집어넣어 이해한 것이고, 따라서 시간마저 공간을 집어넣어 이해한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순수 지속 즉 진정한 시간은 결코 그러한 공간화 된 시간일 수 없다는 것이 베르그송의 생각입니다.

"구별하고 세는 장소라는 의미로 이해되는 시간은 공간에 속할 뿐이라고 추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견해를 우선 확정하는 것은, 반성적 의식이 시간과 심지어 계기에 대해 가지는 감정을 묘사하는 데에 사용하는 상image들을 반드시 공간에서 빌려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한 지속은 다른 것이어야 한다."(위 책, 118쪽)

요컨대 공간과 시간은 전혀 다른 것이며, 의식의 사실들을 셀 수 있는 것으로 여겨 성립하는 의식의 사실들의 다수성에서 시간적 다수성을 찾아내는 것은 시간을 잘못 공간화한 탓이라는 것입니다. 순수 지속이야말로 진정한 시간이고 진정한 의식의 상태라는 것인데, 문제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3교시)

3. 동질적 시간과 구체적 지속

베르그송은 지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속에는 가능한 두 견해, 즉 모든 혼합으로부터 [벗어난] 순수한 지속과 공간의 관념이 몰래 개입한 지속이 있다. 완전히 순수한 지속은 우리의 자아를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 현재 상태와 이전 상태 사이를 구별하는 것을 삼갈 때, 우리 의식 상태들의 계기가 취하는 형태이다. 그를 위해서는 지나가는 감각이나 관념에 자아 전체가 흡수될 필요는 없다. (…) 말하자면 전체가 녹아들어간 한 선율의 음들을 상기할 때처럼 그것들을 자아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그 요소들 각각은 전체를 나타내며, 추상할 수 있는 사유에게가 아니라면 전체로부터 구별되고 고립되지 않는다. 어떠한 공간의 관념도 가지지 않을 것이며, 동일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변화하는 존재자가 스스로의 지속에 대해 가질 표상은 의심할 여지없이 바로 그런 것이다."(위 책 130-132쪽)

혼합된 지속은 공간의 개입이 이루어진 일종의 계기적인 지속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의식 사실들의 다수성을 말할 때의 의식의 지속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시간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 베르그송의 생각입니다.

www.artnstudy.com

“한 마디로, 나는 이미 공간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속 속에서의 가역적 연쇄라는 관념, 또는 단순히 시간 속에서의 어떤 계기적 순서라는 관념조차도 그 자체 공간의 표상을 내포하며, 그것을 시간을 정의하는 데에 사용될 수 없을 것이다.”(위 책 133쪽)

여기에서 베르그송이 지속 속에서의 가역적 연쇄의 관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컨대 우리가 책상의 모서리를 빙 둘러 만졌을 때 일정한 지속의 관념을 가질 수 있는데, 만약 반대 방향으로 다시 빙 둘러 만지면 지속이 거꾸로 되돌아가 나타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식의 관념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은 모두다 공간의 표상을 집어넣은 것이라는 이야깁니다.

결국은 공간의 표상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지속이야말로 순수한 지속이겠습니다. 의식으로서는 현재 상태와 이전의 상태를 구별하지 않고, 의식과 대상을 구분할 수 없이 의식의 자아와 충분히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대상으로서는 부분이 전체로부터 결코 떨어져 나와 고립되지 않고, 그러면서 부분이 그 자체 전체이기에 동일하면서도 변화하는 것 즉 변화가 전체의 동일성을 완전히 이끌어가는 생성 자체를 순수 지속이라고 베르그송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의식 자체의 세계 속으로 충분히 침잠해 들어가야만 이러한 순수 지속에 대한 한 가닥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뒤에 다시 그렇게 침잠해 들어가 잡은 순수 지속의 실마리를 우리 의식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사태들에 확대 적용할 때 만물을 관통하고 있는 순수 지속의 전포괄성을 약간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르그송 역시 “우리는 지속을 그 본래의 순수함에서 표상하는 데에 믿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을 느낀다.”(위 책 138쪽)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그것은 아마도 오직 우리만이 지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기인할 것이다.”(같은 곳)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ww.artnstudy.com